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4.11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우리는 정말로 평등한가

특집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이달의 현장①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지역운동이야기

YWCA 중견실무자 양성훈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책망과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한 뿌리 두 몸의 불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너는 왜 그러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내 안에 함께하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부끄러움 가득한 허물투성이 나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 못남을 따지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무릎을 세워 다시 일어날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04 이달의 생각 우리는 정말로 평등한가 | 함희경
 05 월레아침기도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 김은혜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11월의 한국YWCA | 유성희

특집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08 기획 ①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 장미혜
 10 기획 ②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 인지 감수성 | 김유은혜
 12 기획 ③ 여성폭력 추방을 향한 세계 연대 | 원영희

14 세계YWCA · YMCA 기도와 국제선선주간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칼럼
 16 탈핵 핵 재처리, 해서는 안된다 | 김익중
 18 여성 TV 드라마 속 여성은 가짜다 | 윤세민
 20 인권 내 안의 편견과 싸워야 인종차별적 정서 극복 가능 | 김정린
 22 청년 2014 YWCA 청소년 활동가 연수 | 장윤미 · 이지은

24 이달의 현장 ①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편집실
 26 ② 2014 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 · 금융교육회의 | 편집실
 28 ③ YWCA 여성 담당 활동가 워크숍 | 김재현
 30 ④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연수 | 박성숙
 31 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토론회 | 박동순
 32 ⑥ 6개 정회원YWCA 모금워크숍 후속 보고 | 김정민
 34 ⑦ 고리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한 전국집중행동 | 편집실

35 이달의 묵상 하늘 냄새 | 이천진
 38 지역운동이야기 YWCA 증전실무자 여성훈련 | 최수산나
 40 북한어린이돕기 마을에서 벌이는 작은 실천 | 부천YWCA

42 연합회 소식
 44 회원YWCA 소식



표지이야기
 10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YWCA 비폭력 주간에 참가하며 김해YWCA 이사, 자원봉사자, 실무자들이 '여성 폭력, 어떤 이유로도 안돼!'라는 의미의 "X" 표시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국YWCA가 함께 연대한다.

12월 한국YWCA 주요일정
 11/25~12/10 전 세계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주간
 12/2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연구보고회
 12/11 연합회 성탄예배
 12/18 씽크머니 우수 프로그램 · 공모전 시상식

제50권 제9호 통권 515호 2014년 11월 18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 · 백수경 · 신선 · 원영희 · 윤혜원 · 이경순 편집 박은실 · 이주영 · 전하에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 (02-730-0746) 인쇄 총무기획인쇄 (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평등한가

글 | 함희경 (연합회 실행위원, 여성·성인지위원장)


“요즘 같이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 여성단체가 왜 필요해?”하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학급 임원이나 전교 등수 상위권에 드는 아이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사법고시나 의사면허시험에도 수적으로 여성 합격자와 남성 합격자 수가 예전만큼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초중등 남학생을 둔 부모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치일까봐’ 남자 중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까지 생기는 시점에 여성운동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본다.

남녀평등사회를 넘어서 여성 상위시대라고까지 주장하는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평등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가능한 교육의 기회와 시험에 있어서의 평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2014년 대졸 취업 현황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으며, 고학력 여성일수록 남성보다 취업률이 더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조사결과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남성 68.9%, 여성 58.5%(스포츠서울)로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률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성평등을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도록 하자.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수준이 142개국 가운데 117위로 나타났다. 2010년 104위,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 올해는 작년보다 6계단이나 더 내려갔다. 동일노동 남녀 임금 격차(125위), 여성경제활동 참가 및 기회(124위), 여성 평균 임금(109위), 기업의 관리직 진출 여성(113위), 여성 기술·전문직 숫자

(98위), 정치 참여(93위), 여성 취업률(86위),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94위)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후퇴했다.

이러한 불평등의 모습은 비단 여성의 경제참여와 정치 참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통계포털 ‘서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 3,869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정폭력 건수는 1만 7,141여건에 달했다. 성폭력 역시 올들어 9월까지만 해도 2만 2,211건으로 기록했다(헤럴드경제 2014.11.5.). 위의 통계가 말해주듯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미디어에서 대두되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사건들은 가장 큰 사회적 여성 불평등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큰 힘(신체적 또는 사회 지위적)의 차이 즉, 더 많은 ‘힘’을 가진 자의 횡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원인이기도 하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인 ‘담론에서 행동으로’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여성폭력은 여성차별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 인권침해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양성평등과 여성폭력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의 문제, 성별 불평등의 논리는 제3세계에서나 있을법한 한물 간 토론거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체로 전국에 300여개의 여성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YWCA가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다 아는 그저 그런 ‘뻘한 얘기’나 해결책이 없는 골치 아픈 이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성평등과 여성폭력은 Y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Y 기관들이 사회 각 부문들과 연계하여 주창하며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평등의 문제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글 | 김은혜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의 본문은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와 함께 행복의 내용과 조건을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행복한 삶, 복된 삶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 3절에서 11절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마카리오스(Makarinos,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전반부에 반복된다. 신약에서 언급되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행운(Fortuen)’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복된 삶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복된 행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를 말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위로를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순간도 하늘의 위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오로지 건강을 목적으로 장수하기 위한 행복도 아니고, 돈으로 측정되는 행복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권력으로 얻어지는 행복도 아니었다. 본문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만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한다.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애통은 죽음을 애도하는 애절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

로 슬픔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표현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토록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라는 뜻이다.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대한 회개의 애통함이다. 애통하되 자신을 위해 애통하라는 말이다. 눈물 흘리되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애통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의 영적이며,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슬픔이다.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고통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들이다. 믿는 자들이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을 넘어 이 땅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아파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 사회의 이웃들을 위해 애통해야 한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YWCA 안에서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Y 회원들을 포함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어머니로,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그 애통하는 자리가 복된 삶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의 위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킨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희망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때 실현될 것이다. 

11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 기획 ① _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 정미혜
- 기획 ② _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 인지 감수성 | 김유은혜
- 기획 ③ _ 여성폭력 추방을 향한 세계 연대 | 원영희

11월 둘째 주 주간은 전세계의 YWCA와 YMCA, 두 Y 운동의 회원들이 공동기도주간으로 지키는 시간입니다. 세계YWCA와 YMCA가 공동으로 기도주간의 주제를 정하고 주간 동안의 묵상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YWCA는 이 자료를 번역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지역별로 YMCA와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2014년도 기도주간의 주제는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입니다.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킨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여성들이 담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했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필요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능동적으로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한 것이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믿었고 끝까지 지키는 여성들은 모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기도주간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경계를 넘어서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연대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를 맞은 여성지도자상의 시상식에서도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두 분의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단순히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젠더적 관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오신 김영란 대상 수상자는 깊은 성찰과 올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젊은지도자상은 탈핵운동가인 김혜정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탈핵운동이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까지 그 중심에 김혜정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

민운동가들의 대표로 수상한다는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곳곳이 올바른 것을 외치는 모든 운동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큰 상이 될 것이라는 감사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활동가들, 여성 관련 시설의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소망은 어떤 폭력도 없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무자연수, 중견활동가의 여성훈련에서도 YWCA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고자 힘쓰는 여성들의 연대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Y는 다양한 여성들의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여성들의 모임은 물질과 성과중심의 세상적 가치에 맞서는 용기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며 52개 회원Y의 대표들이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원전폐쇄를 외치며, 아이들을 위한 생명의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탈핵의 세상까지는 앞으로도 힘들고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탈핵운동은 미래를 내다보며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적극적인 실천도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연합하여 행동하고 작은 실천부터 정책의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Y운동이 되도록 연합회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YWCA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분들의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여성 안전 지역사회 만들어

글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안전한 사회 환경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 요건인데, 최근 성폭력 등 여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죄는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과 여아, 여자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이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다년도에 걸쳐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세 부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여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현 시점은 여성과 아동폭력정책이 현재로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성과 함께 폭력정책의 방향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지역사회 여성안전정책의 한계와 유관기관 협력의 중요성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y)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별이나 연령, 인종이나 수입과 능력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내의 환경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 정책이 사후 대책과 제도적인 부분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미흡하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문제는 여성인권

측면에서 가해자 교정 및 치료, 예방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전예방과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상당부분이 사후치료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안전정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0대 중증 장애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7년간 수감됐다가 출소한 60대 남자에게 보복살인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중증 장애인 이어서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전에 안전보호를 받았다면 보복살인까지 당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경찰인력이 부족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이용해 신변보호에 도움을 제공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만든 것이다.

현재 지역 내 기관과 조직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협력은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과 다양한 여성단체 등의 민간기관이 범죄의 예방과 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연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여성안전에 대한 일차적 관심은 경찰뿐만 아니라 여성·아동과 관련된 지자체(여성가족 관련 부서)에 있다. 지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 여성들이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수준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바탕으로 하는 아동여성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여성 스스로가 지키는 지역의 안전

이웃과의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인데, 지역 공동체의 신뢰회복은 여성의 사회안전감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의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하려는 좋은 예로서 WHO 협력프로그램인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단체들과 구성원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 기업, 주민들의 협력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도시의 개념에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사회구성원간의 소통을 통한 신뢰와 협력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여성당사자와 여성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여성 안전을 포괄하는 큰 개념으로서 '안전'에 대한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안전망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체 구축사업은 지역주민의 주도성을 강조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내 여성안전의 감수성을 증진시키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안전에 방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나 시민들이 모임과 만남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전략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과 정책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단체보다는 기존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지방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결국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관련 주체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여성들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다음 자료를 요약하여 씁니다. 장미혜·윤덕경·이인선·임유미·정지연(2013).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V): 여아 및 여성안전 관련 정책점검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유흥문화와 인터넷 음란물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 만들어

글 | 김유은혜 (통영YWCA 성폭력상담소장)

연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뉴스들이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청소년의 성문제가 심각한 수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문제를 비롯한 여성폭력에 관해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성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 내 유흥문화의 팽창은 청소년들에게 모방탈선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는 환경 속에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더불어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급격한 생물학적·심리적·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한다. 청소년들은 아직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음란물을 접하면서 그 영향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어 잘못된 성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로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왜곡된 성문화를 접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대들의 왜곡된 소통 방식

최근 들어 상담소로 음란물 유포 피해로 인해 경찰에서 연계되어 상담을 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몇 명 있다. 이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가치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여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SNS(페이스북, 카카오톡)를 통해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교나 주변에서 이성을 사귀게 되더라도 주로 대화는 SNS를 통해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로가 사귀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끊임없이 SNS로 서로의 생활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내용을 공유하다 보니 이성과의 물리적 거리와 사귀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서로가 빠른 시간 안에 친숙해진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이름을 가명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나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속이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가 친밀한 사이, 즉 남친과 여친이 되고 나면 좀 더 특별한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음란물에서 보았던 은밀한 부분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면서 특별한 사이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에 빠져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사이였다가 헤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이것을 미끼로 협박



을 하기도 하고 더 과한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남친이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여친에게 가슴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남친은 성기를 보냈으니 여친이 자신의 가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 보냈는데 남친이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남친에게 더 이상 사진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 '너희 부모님에게 알려겠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친이 요구하는 대로 더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한 사례에서는 남친이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면 자신도 남친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나선 여자아이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보면 똑같은 몸의 교환에서도 성에 흐르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중잣대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여성이 되고 만다.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 상품화되었을 때 돈으로 환원되는 가치가 엄연히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남성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요즘 여학생들이 성에 대해 많이 개방되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폭력은 기성세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타인과의 특별한 대화의 방식이라고 음란물을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방어하거나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방식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청소년 성매매에서도 잘 나타난다. 얼마 전 김해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다


수의 언론들은 본 사건의 표면적 실체인 여학생들이 또래 친구인 여학생에게 폭력과 성매매를 강요하고, 살인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아래에 묻혀있는 이야기, 즉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해 여학생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된 가운데 가출하여 SNS를 통해 유일한 생계수단인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권력이 있는 남친, 즉 포주에게 성폭력과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현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

성교육-부모에게도 필요

예년에 비해 전국의 각 학교마다 성교육 시간이 의무화되고 많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이 자기 존재를 수용하고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간관계에 근거한 성교육이기보다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치우쳐 있다. 청소년들에게 '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성을 불결하거나 야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호기심을 만들어 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음란물을 보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존재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관계적 사고를 확장해 가는 관계 중심적인 교육 즉 인간관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고민 중 이성교제와 임신에 관해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민을 대부분 친구와 나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방향이 성폭력 예방교육보다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에티켓이나 피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고민들을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한 부모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와 자연스럽게 성적 고민을 얘기하고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의 성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세계YWCA 회원국들과 연대로 이룩하자

글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서기, 세계YWCA 이사)

세계YWCA 운동의 핵심은 3대 영역 “젊은 여성 리더십 양성, 여성 건강 증진과 에이즈 치유, 그리고 여성폭력 추방(Young Women’s Leadership,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HIV and AIDS, Violence Against Women)”으로 축약할 수 있다. 특히 여성폭력추방(이하 VAW)운동에 여성 스스로가 보다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여성’(Women Creating a Safe World)을 2011년 세계YWCA 27차 총회 주제로 내걸어 전 세계 120여 회원국 2,500만 회원들의 동참을 선포했다.

일본군 성노예와 UNSCR1325 그리고 세계YWCA

UNSC결의안 1325에서 서술하는 전쟁피해여성은 정확하게 아베정권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이다. 일본은 물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모든 국가들은 이웃나라의 소중한 딸들을 강제로 데려다 성노예로 만들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인권유린과 성폭력의 상처를 입고 죽어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끔찍하게 아픈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영원히’ 있다. UNSCR1325는 바로 이런 이들에 대한 결의이다. 아직도 전쟁과 분쟁지역에 근접한 여성과 어린 여성들이 똑같은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차별 성폭력과 살해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올해 초 세월호 사건으로 한반도가 슬픔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여학생들이 300여 명이나 백주 대낮에 납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는 도망쳐 나왔지만 누가 그 남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마치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잊어가듯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 모두들 참 쉽게 잊는다. 당시, ‘조선인 여성’ 성노예들의 존재도 일본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이유로 역사 속에 묻어 버리고 다들 잊어버려 버렸으나, 저들을 기억하는 몇몇 정의로운 시민단체 여성들의 노력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작년 201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10차 WCC(World

Church Council, 세계교회연합, 이하 WCC) 총회에 참석한 세계 기독교 여성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 거의 70년 만에 성노예 여성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바로 부산 YWCA에서 마련한 전쟁 피해 여성 방문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버스 두 대에 나눠 탄 여성들은 탈북 여성들과 전쟁 성노예 여성들의 거처를 방문해 대화하면서, 전쟁 중 성노예 여성들 중 대부분이 ‘조선인’ 즉 한국인 여성이었으나 대만, 캄보디아, 그리고 네델란드인 성노예 여성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날 오후, 세계 기독교 여성들은 즉각 모임을 소집했다.

한국YWCA와 인접한 곳에 부스를 차린 세계YWCA 겸 부산YWCA부스에 모여 WCC 참가자들로부터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며, 또한 일본의 아베정권이 이



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전 세계 100만 명 서명을 받아 UN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세계YWCA 홈페이지에 실린 관련기사 사이트: <http://www.worldywca.org/YWCA-News/World-YWCA-and-Member-Associations-News/Japanese-Military-Sexual-Slavery>)

여성폭력 추방 운동과 세계YWCA III와 II

세계YWCA는 VAW운동을 먼저는 운동에 참여하고, 둘째, 전문 인력들의 법제화 작업을 통한 정책화를 주창하며, 셋째, 전 세계 젊은 Y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의 현실을 공유하는 교육 등의 세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떤 운동에도 젊은 여성 지도력들을 배제하지 않으며, ‘2035년 비전 만들기(2035-Visioning)’의 주체도 젊은 여성이기를 바라고 있기에, 2011년 27차 세계대회 이후 세계 각 지역을 돌며 지도력 훈련인 YWCA ITI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YWCA 국제 연수원) 혹은 ILI (Internation Leadership Institute, 국제 지도력 연수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창립 90주년을 맞이해 11월에 ITI를 유치했다. 당연히 주제는 VAW였고, 세계적인 VAW 운동가와 전문 활동가들이 강의했으며, 30여개 국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세계YWCA 실무진을 도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한 한국 YWCA 자원봉사자들과 실무자들은 여성폭력의 현실이 범 세계적인 문제이며 영원한 YWCA의 과제임을 절감했다. 세계YWCA 이사이며 2012 YWCA ITI준비위원으로 봉사하며, 월트 디즈니의 손녀인 아비가엘 디즈니 선생과 철원 DMZ를 방문했던 기억은 소중하다. 아비가엘은 ‘여성, 전쟁과 평화’ 연작 필름을 제작하여 미국 공영 방송인 PBS에 방영하여 1,300만 명의 시청자를 감동시킨 VAW 운동가이다.

ITI의 후속 연수 프로그램이 ILI이다. Y의 중견 지도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바로 올해 2015년 10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렸다. 아쉬운 건 한국인 참가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다. 연수는 단순히 교육의 목적만 있다기보다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볼 수 없는 Y 운동가들이 전 세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하고 산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 현장이며, 서로를 격려


하는 귀한 교제의 ‘한 마당’이다. 젊은 한국YWCA 지도력들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열리는 세계YWCA 주관 ITI와 ILI에 더욱 많이 참여하여 글로벌 지도력을 키우고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 세계의 자매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나누어야만 한다.

세계YWCA의 중점 운동을 이끌어야 하는 한국YWCA

한국YWCA는 세계YWCA 120여 회원국 중에서 회원수가 1위인 미국 다음으로 2위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인구 대비 회원수가 가장 많은 1등 회원국이다. 한국YWCA의 운동 상황과 방식을 설명하면 세계YWCA 이사들은 다들 놀란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 감각을 얘기하면, 그 열악함에도 다시 다들 놀란다. 여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추방 운동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숫자로 얘기해도 다들 놀란다. 게다가 탈핵운동을 범 국가 차원으로 벌이고 있다면 놀라다 못해 고개를 흔든다. 어떻게 실무자들이 그 많은 일을 하느냐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한국YWCA는 단연코 세계를 압도한다. 매월 월례 기도회를 드리는 YWCA가 세계에 어디 있겠는가? 저들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할 때마다 자랑스럽다.

그러나 국제업무에 밝은 운동가가 한국YWCA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YWCA를 돕는 한국YWCA가 되려면, 우리 프로그램과 우리들의 노하우를 국제화 해야 하고, 그 개념화와 국제기구 접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제 지도력 훈련도 시급하다. 2012 ITI와 2013 WCC를 통해 우리 한국YWCA는 세계적인 VAW 운동가들을 만났고 또 일본군 강제 성노예 여성의 존재를 전세계 알리는 백만 서명운동도 새로운 과제로 진행 중이다.

세계는 넓고 한국YWCA가 할 일은 정말 많다. 돕는 위치에서 이제는 주도하는 위치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마침 2015년도 제 28차 세계대회가 방콕에서 열린다. 주제는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 Towards 2035)이다. 전 세계의 여성폭력 추방 운동은 한국YWCA가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을 국제감각을 지닌 운동가로 키우고 나눌 때 더욱 가속화 되리라 믿는다.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2014년 기도주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올해의 주제는 출애굽기를 통해 생각해보는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이다. 이번 주간의 성경 읽기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영향력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지혜롭고 담대한 지도력을 기리고자 한다.

한 세기가 넘도록 YWCA와 YMCA는 여성, 남성,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 차원에서 사람이나 지역사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맞설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상을 해보기를 바란다. 이 성경 읽기를 통해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하고 변화시키는 용기를 가지시길 기원한다. 이 세상은 이러한 영웅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첫째 날 십브라와 부아: 저항하기 위해 팀을 결성함 (출 1:15~21)

기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해 폭력에 항거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주소서. 새롭고 창조적이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당신의 영을 내려주소서.

둘째 날 모세의 어머니: 위험을 감수, 죄를 명명함 (출 2:1~3)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 또는 정치적인 저항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위해 싸우면서 자포자기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해주시고 약자에게 힘을 주시며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연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날 모세의 누아: 목격과 증언, 경계의 무너뜨림 (출 2:7)

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진리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기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증언

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창조적 사고와 행동을 저해하는 경계의 한계를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창 16)

넷째 날 바로의 딸: 상황을 알고 있으며 자비로움 (출 2:5~6, 8~10)

기도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인지하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 이에 대해 문 제제기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심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권능을 공유하면서 이들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평화를 숨쉬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려주소서. 아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삼위일체, 영원한 지혜, 살아있는 말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바로의 딸의 시녀들: 서로를 돕는 살아있는 연대성 (출 2:5, 6~9, 10)

기도 하나님, 이름없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사 49:15)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민자, 미혼여성, 무슬림, 기독교인, 난민 등과 같은 신분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보고, 모든 사람을 개별 인간으로 보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개인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여섯째 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출 4:24~26)

기도 평화의 하나님,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쁨과 고통을 다 알고 보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소서! 사람들은 평화와, 자유와, 인권을 처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평화를 보내주소서! 아멘.

- 탈핵 _ 핵 재처리, 해서는 안된다 | 김익중
- 여성 _ TV 드라마 속 여성은 가짜다 | 윤세민
- 인권 _ 내 안의 편견과 싸워야 인종차별적 정서 극복 가능 | 김정린
- 청년 _ 2014 YWCA 청소년 활동가 연수 | 정윤미 · 이지은

핵재처리, 해서는 안된다

글 | 김익중 (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제1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2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3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4편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제5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6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7편 _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
- 제8편 _ 경주 방폐장
- 제9편 _ 핵재처리
- 제10편 _ 핵발전의 대안

핵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첫째는 원자로 안에서 4년간 물을 끓인 후 나온 사용후 핵연료(혹은 고준위 핵폐기물)이고, 둘째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인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다. 현재 이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원자로마다 약 100톤의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고, 현재까지 약 10,0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임시로 저장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로 옆에 붙어 있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고, 이 저장소가 거의 찬 상태이니 정부로서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 사용후 핵연료는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다. 이 점에서 300년만 보관해도 되는 중저준위 방폐물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작년 말에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방사선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약 1분간만 가까이 있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이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하나는 재처리이고, 다른 하

나는 직접처분 방식이다. 핵재처리는 사용후 핵연료에 있는 약 1%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처분은 이러한 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 땅에 묻거나 지상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 내에서, 혹은 원자력계 내에서도 이 두 가지 처분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직접처분 방식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10만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폐장을 만들 기술이 없다. 현재 기술로는 10만년이 아니라 50년을 쓸 수 있는 방폐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적 진보가 없다면 50년에 한번씩 2,000개의 고준위 방폐장을 지어야 10만년이 지나 가게 될 것이다. 남한에 2,000개의 고준위 방폐장을 지어야 하다니,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직접처분이 아니라 재처리를 한다면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핵재처리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약칭 NPT)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핵재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핵재처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서 국제사회가 재처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핵재처리는 원전보다 훨씬 더 큰 위험과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직접처분을 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골치 아픈 핵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자력계의 일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들이 핵재처리를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식처리를 하면 핵확산성이 적다. 둘째, 재처리를 하면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다. 셋째, 재처리를 하면 처분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건식처리를 하면 핵확산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현재 핵재처리를 하는 기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습식처리와 건식처리가 그것이다. 습식처리는 순수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건식처리는 순수한 핵물질이 추출되지 않으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견 일리있는 주장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핵무기를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핵재처리를 할 이유는 없다는 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건식처리를 하여 생산된 핵물질들은 일반적인 원자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소듐고속로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소듐고속로는 너무나 위험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결국은 포기한 기술이다. 일본의 경우는 십수년 전에 이 고속로를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사고와 수리를 반복하며 보냈다.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기술을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덤벼드는 한국 원자력계의 용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핵확산성이 없다는 건식처리도 이렇게 일단계 처리를 한 후 습식처리를 할 경우 재처리가 쉬워지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핵재처리파의 두 번째 주장은 재처리한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이렇게 재처리된 핵연료(MOX 연료)를 보통 원자로에서 재사용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다. 재처리된 핵연료는 보통의 핵연료에 비해서 5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경제성을 고려한다

면 굳이 원자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재처리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주장하는 건식처리 방식으로는 이러한 MOX 연료도 만들어낼 수 없다.

핵재처리파의 세 번째 주장은 재처리를 하면 처분해야 할 핵연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피 사용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 약 1% 정도가 만들어진 다. 이 플루토늄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질들은 재처리해봐야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이다.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보다 나올 것이 없고, 우라늄238 역시 천연 우라늄보다 못하다. 죽음의 재료 불리우는 다른 핵종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사용처도 없어서 결국 직접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결국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쓸모있는 물질은 플루토늄뿐인데, 이 플루토늄은 핵무기 외에서는 전혀 용도가 없다. 겨우 1%의 핵물질이 줄어들 뿐인 핵재처리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생산해낸다. 결국 핵재처리를 하더라도 직접처분을 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은 겨우 1%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사용전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우라늄 235	약 3%	약 1%
우라늄 238	약 97%	약 94%
핵분열 생성물	-	약 4%
플루토늄	-	약 1%

사용전 핵연료와 사용후 핵연료의 비교. 사용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 1% 정도 들어있고, 죽음의 재료라고 불리는 핵분열생성물이 약 4% 정도 들어있다.(필자의 저서 '한국탈핵'을 인용)

한국은 핵재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핵무기를 만들 목적 외에는 사실 어떤 목적도 없는 것이 바로 핵재처리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돈과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같은 짓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미국 등 많은 나라들처럼 직접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직접처분 역시 엄청난 돈과 위험을 안고 가야하는 문제이다. 핵발전은 한번 시작하기만 하면 10만년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엄청난 돈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핵발전소를 도대체 누가 이 땅에 들여다 놓았을까? 

TV 드라마 속 여성은 가짜다

글 | 윤세민 (경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시인 · 방송평론가)



왜 여성들은 TV 드라마를 선호하는가?

TV 드라마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 중 하나다. 이는 남녀간의 TV 프로그램의 선호도 차이를 보면 뚜렷이 나타나는데, 남성들은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 등의 순으로 좋아하고, 반면에 여성들은 드라마, 예능 등 여성 취향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부분의 TV 드라마들은 여성들의 관심사를 많이 다룬다. 특히 개인적인 갈등과 감정적인 갈등을 주로 다루면서 가정적인 문제나 그 가족 성원들과 관련된 일들이 주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와 주제로 이어지는 드라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것이 다른 장르보다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플롯이 다양하고 각 사건들이 등장인물의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되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은, 드라마 텍스트 자체가 뚜렷한 주제를 수용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드라마를 만들어 내는 방송국은 인기를 먹고 사는 기구이므로 끊임없이 사회의 가치 변화나 수용자의 변화 등과 협상을 해야 하므로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교묘하고도 음흉한 TV 드라마의 장치

그러나 드라마의 그 열린 가능성 안에는 교묘하고도 음흉한 장치가 도사리고 있다. 소위 '막장 코드'다. 불륜, 삼

각관계, 사각관계, 출생의 비밀, 근친상간, 혼전임신, 낙태, 재벌, 우연한 사고, 기억상실, 시한부, 복수, 자살, 살인 등등이다. 이는 이미 익숙한 요소들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는 영상 문법인 '컨벤션'으로 고상하게 환치돼 불리기도 한다. 아무튼 '막장 코드'든 '컨벤션'이든 이는 시청자와 관객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면서 시청률과 흥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코드와 장치들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내용의 전개 및 전환을 위한 극적 장치로서 드라마를 더 흥미롭고 드라마틱하게 만들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시청자로서 알면서도 당하는 교묘하고도 음흉한 장치인 셈이다.

TV 드라마의 주 희생자는 바로 '여성'

그런데 문제는 이 장치의 주 희생자가 바로 'TV 드라마 속 여성'이요, 또한 'TV 드라마 밖 여성'인 여성 시청자들이라는 점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드라마 속 상황에 자신을 이입하게 된다. '자발적 동의'라는 것이다. 동의란 곧 동조요 동화다.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그것이 실재하는 사실임을 믿고 싶어한다. 더 나아

가 드라마라는 전제 '위에' 그것은 실재처럼 존재하고 작용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그 안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 실제 자신이 드라마 속 인물이 되어 그 상황들을 체험해 본다. '투사'라는 것이다. 마치 드라마 속 인물들이 바로 시청자 자신인 것처럼,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자신을 투사하여 즐기게 된다. 그래서 주로 여성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며 드라마 속 여자주인공처럼 울고, 웃고, 화내고, 원망하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는 것이다.

TV 드라마 여성 다루기의 허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꺼이 자신을 투사한 그 'TV 드라마 속 여성'은 태반이 '가짜'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가짜'는 '허구의 인물'을 가리킴이 아니고, '오도된 거짓 여성'을 이른다. 그 실례를 보자.

우리나라 TV 드라마 속에서의 여성상을 분석해 보면, 순종적인 아내는 사랑받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은 갈등 제공자로 귀결된다. 어머니는 헌신적인 여성으로, 때로는 주책스럽고 허영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딸은 철부지로, 결혼한 여성은 효녀로 그려지며, 순종하는 며느리는 효부형으로, 순종하지 않는 며느리는 독한 여자로 그려진다. 유순한 순종형이 이상형으로 그려지고, 자아실현형의 여성은 악녀로 그려지곤 한다. 대체로 사회적인 일을 하는 여자는 부정적으로 그려지는데, 전문직 여성의 묘사는 그들의 애환보다는 성공결과만을 강조한다.

여성들은 공적인 직업과 직무보다는 사적인 관계에 주로 몰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똑똑하고 능력있는 커리어우먼형 직업여성의 경우 항상 트러블 메이커로서 이미지화 되면서 가정에서는 시부모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의견충돌이 잦고 자주 갈등을 빚는 것으로 등장한다. 가정은 가정대로 고통을 겪고, 직장에서는 드세다는 이유로 남성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모습으로 고정 관념화시키고 있다.

또 멜로드라마는 여성이 남성에게 구속당하는 것을 사

랑의 본질인 양 왜곡함으로써 여성의 인생 중 최고는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만들어 내거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성 또는 남성을 그림으로써 낭만적인 사랑의 신비주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다. 더불어 어린이 만화나 드라마는 강한 남성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대신 여성은 이 주인공에게 의지함으로써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약하여 보호 받아야 할 존재임을 주입시키기도 한다.

좋은 드라마는 '진짜 시청자'의 몫

우리나라의 TV 드라마는 흔히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능동적, 주체적,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 TV 드라마 속에서조차 여성의 주된 관심사를 요리, 패션, 미용, 몸매, 가족의 건강, 자녀교육에 한정시키고 있다. 또한 대다수 여성을 남성의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하며, 자신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돌볼 때 진정 아름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작 외모 가꾸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은근히 '남성우월'을 강조하는 TV 드라마는 남성에게는 능력, 즉 권력이나 돈이 중요하고, 여자에게는 외모나 성적 매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조장하곤 한다.

이제는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온전히 가사노동만 하는 여성보다는 부업이나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TV 드라마는 주 시청층인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이 으레 겪게 되는 육아문제, 가사노동 분담의 문제, 취업문제, 정치·사회·경제 문제 등을 애써 도외시키고 있다. 결국, TV 드라마 속의 '가짜 여성'은 시대착오적으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진정 TV 드라마 속에서 '가짜 여성'이 아닌 '진짜 여성'을 자주 자주 발견하고 싶다. 그것은 TV 드라마 밖의 깨어 있는 '진짜 시청자'의 몫일 것이다.

내 안의 편견과 싸워야 인종차별적 정서 극복 가능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역사적으로 여성차별만큼이나 오래되고 뿌리가 깊은 인권문제가 있다면, 인종차별문제가 아닐까 싶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에게는 나와 다른 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와 다른 남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 두려움을 쫓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랜 시간동안 쌓이면서 사회와 인간 내면 깊숙히 뿌리내렸고 사회 속에서 학습을 통해 오히려 공고화되어, 의식적으로 축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식 속에서 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기제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만다.

노예제도, 아메리카 인디언과 호주의 선주민에 대한 학살,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발칸반도에서의 인종청소를 경험하면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끔찍한 인권침해이며 반인도적 범죄인지 온 인류가 실감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노력을 경주해왔다. '인종차별 철폐 선언', '유엔인권차별철폐조약' 그리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위시한 국제규범들이 만들어졌고,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비롯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10년'이 무려 3번이나 정해지기도 했으며, 2001년에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사이드 및 이와 관련한 비관용 반대 국제회의'가 그리고 그 후속회의가 2008년에 개최되기도 했다. 유엔 인권 메카니즘에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하

여, '인종차별특별보고관', '아프리카후손에 관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제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이동과 함께 복잡, 다양해지는 인종차별문제

그러나 인종차별문제는 사라지기는 커녕 그 양상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고, 자연재해 및 무력분쟁으로 인해 오히려 1,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난민이 되어 배로, 육로로, 가깝고도 또 먼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불과 10~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이주자(또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주민, 난민의 수적 증가로 이들을 받아들이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보호-대개의 경우는 자국의 국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왔다. 대체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시설에 가두어 '보호'하고 절차에 따라 국내입국을 허가하거나 강제 출국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 수용소를 설치하여 무서류 입국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열악한 수용시설과 처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론화된 적이 있다.

호주에서는 자국 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가로 보트 난민들을 보내면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다.

인종차별의 새로운 양상과 대안적 조치

최근 인종차별문제는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종차별 문제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언론, 문학, 음악, 미술 등을 통해 이슬람 교도 등 소수 민족 및 종교 그룹을 비하하는 일이나, 신나치주의(Neo-Nazism)가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일이 왕왕 벌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가까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일부 우익 정치인들이 재일 한국인들에 대해 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 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증오발언'hate speech'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철폐조약이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적, 규범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증오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매우 논쟁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s'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증오발언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한 다른 대안적 조치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관용에 대한 교육, 역발언(counter speech - A가 B에 대해 증오발언을 했다면, B를 지지하면서 A는 비난하는 발언)을 들고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해야겠지만, 그보다 낮은 수위의 증오발언은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교육과 논쟁을 통한 인식전환이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증오발언으로 인해 위축되기 쉬운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해법-인종, 그리고 경험에서 얻는 교훈

한국은 최근 10년간 인구 구성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5년 38,020명


이었던 귀화 외국인 수는 146,078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539,740 명이라고 한다(2014년 1월 기준).

2007년 대한민국 정부 대표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국가로 인종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인종차별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물론 그때에도 지금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웃으로, 동료로,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아직 미흡하지만,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착취, 역압이 사회문제가 되고 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민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목도한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한 가장 혁혁한 변화 중 하나로 이제는 모든 나라가 자국 내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꼽는 것에 비춰볼 때,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싸우기 위한 큰 첫 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는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한 인종차별적 인식과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답을 제시할 때이다. 비록 한국은 다민족·다문화로 직접 경험한 시간이 짧았어도, 재일한국인, 재미교포, 재도교포 등 전 세계 한인민사회가 이주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이 경험한 인종차별의 뼈아프고 고단한 시간이 한국에는 무척 값진 자산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적인 외국인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얼굴에 수십년 전, 아니 지금도 만리타향 외국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우리 교포들의 얼굴을 포개어 본다면, 우리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

인종차별의 철폐는 '인간은 피부색,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비전

글 | 장윤미 (익산YWCA Y-틴 간사)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부담되는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Y-틴과 Y 청소년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대를 가지고 청소년 활동가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청소년 활동가 연수는 연합회 Y아카데미에서 기획하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 부산YWCA에 모여 연합회 부산Y 하선규 회장님, 부산Y 김혜경 사무총장님, 유성희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활동가 선배들의 환영과 격려로 첫 시간부터 힘을 얻고 연수가 시작됐다. 또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 인적·물적 활용, 등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받는 시간이었다. 또한 청소년을 향한 사랑하는 그들이 Y활동가로서 갖고 있는 자부심에도 전을 받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고리원자력 홍보관을 방문했다. 사실 방문 전에 우리가 하는 탈핵운동의 이유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앞섰다. 홍보관 담당자는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날 확률은 '지구에 혜성이 떨어질 확률정도이다'라며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우리의 질문에 점점 자신이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Y의 탈핵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정수희 선생님(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의 만남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 생명평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탈핵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생활 속 실천을 위해 SNS를 통한 전기



절약 릴레이 운동, 탈핵 플래시몹을 포함해 탈핵운동 박람회 개최하여 탈핵 체험부스 활용하기, 하루 동안 전기사용 하지 않기 등의 체험활동, 토론회를 개최해 스스로 탈핵운동의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 진행하기, 탈핵 토크콘서트 등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혹은 예정하고 있는 다양한 탈핵운동의 아이디어들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마지막 날에는 연수를 마무리하며 100년을 향한 청소년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청소년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가득해야 하지만 먼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박 3일의 청소년 활동가 연수에서 쉽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바쁘다고 핑계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인술자라는 역할에 안주했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 중인 익산Y에 돌아와 연수를 통해 배우고 다짐한 것을 기억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익산Y 청소년운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나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각 회원Y 청소년 활동가들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Y청소년 활동가들이 있음에 감사사를 드린다.

활동가가 즐거워야 청소년 운동이 산다

글 | 이지은 (연합회 Y-틴 · 대학청년Y 간사)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사회초년생 청년이 쓴 이런 글을 보았다. "취업준비생일 때, 점심시간 즈음 사원증을 목에 걸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참 밝게 웃는 것을 보고 직장인의 여유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지 회사 밖에 나와서 좋은 것이었다." 요즘 말로 참 웃픈,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다. 깨어있는 시간의 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삶이 즐겁지 않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란 말인가?

나는 요즘 내년에는 Y틴과 대학청년Y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시간을 보낸다.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청년 관련 포럼, 토론회, 공청회, 강연 등을 다니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는다. 공통적인 이야기라면 요즘 청소년·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과 지금 이것들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다들 분주히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사람을 모으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원을 동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Y안에서는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하며 청소년·청년들의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는데, 크게 6가지로 추려졌다.

1. 자아존중감 결여 :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함
2. 시간 부족 : 충분하지 않고, 쉬고, 친구를 만날 시간조차 없이 쫓김
3. 진로 선택 기회 부족 :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탐색할 기회가 없고, 선택지가 적음
4. 적정하지 않은 임금 :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임금으로는 생활비, 학비, 용돈을 충당할 수 없음

5. 과도한 주거비와 등록금 :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자립하기 어려운 비싼 생활비용
6.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과 직장생활 : 자아성장, 비전과 무관하며, 과도한 업무량

Y에 신입 간사들이 들어오면 보통 처음 맡는 부서가 청소년팀이다. 보람이 크지만 희생도 큰 부서이다. 먼저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투입량(input)에 비해 결과(output)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던졌던 따뜻한 인사말은 '썩히기' 일쑤이고, 너무 바쁜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다. 짝사랑하듯 시간과 공과 마음을 들여야 한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각 회원Y에서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활동가 18명이 부산Y에 모였다. 대부분이 2,30대 청년이었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즐겁게 청소년 운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Y가 할 수 있는 청년운동의 한 영역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일이 즐겁고 일터가 즐거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Y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일을 나누어 주기보다 비전을 나누어 주시라. 청소년 활동가들이 Y의 비전과 청소년운동의 비전을 품고, 꿈꾸고, 열정을 쓰게 될 것이다. 둘째, 같은 고민,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들과 만나고 청소년 이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 각종 교육,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보고 들은 것이 다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주말근무, 야근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대체 휴무도 챙겨주시라. 시간이 있어야 쉽도 갖고, 생각도 하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품을 수 있다.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핵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해

글 | 편집실

한국YWCA가 주최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는 YWCA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6일 오후 2시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화암홀에서 열렸다.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여 우리사회에 여성지도력을 세워 온 한국여성지도자상. 올해의 대상 수상에는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젊은 지도자상에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총장,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공해추방운동을 비롯하여 반원전 운동, 탈핵운동을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최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 주고자 탈핵에 대한 열정적인 사명으로 각지 각처에서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탈핵과 에너지 정책 개선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 향상 및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해 온 여성지도자이다.

이번 제 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와 젊은여성지도자상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의 수상을 계기로 각자의 전문 영역

의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수상은 수상자가 평생 성실과 열정으로 추구해 온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직한 사회문화와 공직문화 정착과 더불어 젠더관점을 지닌 판사들의 판결로 우리사회의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의 수상으로 핵없는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대상 수상 김영란 님은 우리나라 첫 여성 대법관으로서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 문화 정착과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하였다.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소신있게 실천하고 헌신함으로써 낮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여성지도력의 본을 보이고 있다.

젊은지도자상 수상 김혜정 님은 고향인 울진의 원전 1호 기동운을 계기로 반핵 운동을 시작하여 환경운동연합 사



대상 김영란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으로

수상소감 1981년부터 30여 년을 판사로 일했는데, 남성 중심적인 법조 사회에서, 여성 차별을 위해 싸워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산적한 재판 업무부터 잘 처리하려고 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났는데 집안일을 다 제치고 언제나 법원 업무가 우선이었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여성 후배들이 나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었기에 사적인 삶을 위한 틈을 낼 여유가 없었다.

이후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면서 여성 후배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법원 내에서 여성판사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시도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젠더관점을 가진다는 것, 젠더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느 지점에서 유효성을 찾을 것이냐는 과제를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법관으로서의 역할이 엘리트 여성으로 권리를 찾는 데 한정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적인 사고와 함께 남성중심 사회에서 인정받은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데까지 사고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점점 소통이 어려워지는 우리 사회에서 젠더관점의 현재적 역할은 이견을 가진

사람이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김영란 법은 이런 대안을 제안하는, 젠더관점을 발전시킨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시기조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상의 수상을 사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YWCA와 여성지도자 활동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젊은지도자상 김혜정 -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수상소감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저에게는 매우 과분하고 송구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이 너무 많이 든다. 스물여섯 살에 고향 울진에서 탈핵운동을 시작할 때는 좋아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다. 활동가들과 함께 치열하게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될 때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원래 운동은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현재에 더욱 충실하고 현장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공백기를 거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시 탈핵운동가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오면서는, 20대에는 필요로 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생각을 했다. 활동 중에 YWCA 회원들도 많이 만났고 엄마들과 여성들도 많이 만났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탈핵운동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날마다 희망을 확인하고 있고 날마다 새로운 탈핵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누구보다 상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YWCA 탈핵운동 활동가들과 후배들 그리고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상은 개인의 상이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같이 주는 상이다. 이상이 후배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고 활동가로 살더라도 잘될 수 있다는, 평가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잘할 수 있고,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성운동가로 서겠다. 여기 있는 많은 여성들과 함께,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10주년을 준비하며

글 | 편집실

한국YWCA가 주관하고 씨티은행이 후원하는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는 2006년 시작된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해 지난 10월 27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울러 11월 5, 6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14년 씨티-파이낸셜타임즈 금융교육회의(Citi-FT Financial Education Summit 2014)'에 참석해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금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청소년 금융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인한 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

10월 2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각지의 씽크머니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와 금융강사,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교육 및 씽크머니 프로그램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향후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연구소 소장은 “교과서에 실린 국내 청소년 금융교육은 현재까지 단순한 지식전달의 차원이지만 해외의 경우는 행동 실천 전략까지 담겨져 있다”며 금융교육에서 민간기관이 청소년과 현장 교사 모두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안용섭 부국장은 청소년 금융교육 강화 방안으로 “국가, 사회, 가정이 체계적으로 연대할 것”을 요청하며 이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안산YWCA 청소년문화의집 민혜진 간사



는 5년 동안 안산Y에서 자리 잡은 다양한 씽크머니 체험 활동을 소개하며, “안산 대학Y와 씽크머니 수강생인 고등학생, 초등학생의 연계활동을 통한 교육시너지가 컸다”며 “지역에서 씽크머니 체험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를 하여 이 날 모인 참석자들이 지역의 YWCA 부속시설에서 하는 다양한 씽크머니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동안 각각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금융감독원, 한국YWCA, 어린이 경제신문(주)이코노아이,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함께 협업하기로 다짐했다. 금융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금융교육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이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가는 시간이었다.

금융 역량을 통한 기회 확대

- 도시 혁신과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2014 금융교육회의

올해로 11회를 맞는 금융교육회의는 11월 5일, 6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씽크머니 담당 회원Y와 연합회 실무자(서울Y 강남청소년수련관 양진화 간사, 충주Y 김애영 부장, 연합회 홍현정 부장)와 연합회 한미미 씽크머니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다. 세션의 휴식시간마다 씽크머니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전 세계의 단체들에게 씽크머니 콘텐츠를 소개하느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밤이 늦도록 YWCA 실무자들끼리 다시 모

여 정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매우 의미있었다.

첫째날 영국 토인비홀 재단의 시안 윌리엄스(Sian Williams)의 강연은 꽤나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 만든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민자 여성들 대상의 커뮤니티 머니 멘토 (Community Money Mentors)라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뒤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변화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코스를 개설하고 모두가 이 코스에 올 수 있도록 코스의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영어 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언어로 기획한다. 이들은 매일 일기를 쓰는데 단순한 용돈기입장이 아니라 금융과 관련해 변화된 점, 들은 이야기 등을 적도록 한다. 결과로 82%의 수료자들의 가계 수입이 증가했고, 77%가 돈을 관리하는 법을 깨달았다. 17,400시간의 교육 이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수료자들은 창업을 하거나, 공부를 지속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구직을 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결국 금융교육만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들의 삶의 전반에 금융과 경제가 녹아들도록, 또 스스로가 개발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한다. 후에 그녀를 만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자기를 포함한 3명의 실무자가 2년동안 새로운 기획에 매달렸다고 한다. 놀란 표정을 지었더니 “그래도 지금은 작동하고 있어요!(But it is working now!)”라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둘째 날 '인간 중심 디자인 워크숍'에 참석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 디자인(Frog Design)의 공동창립자인 디자이너 브랜든 에드워즈(Brandon Edwards)를 만날 수 있었다. 아태지역의 NGO 활동가들과 조를 이뤄 조별로 낯선 사물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과제가 주어졌다. 우리 조에는 슬리퍼가 주어졌는데, 슬리퍼를 받아들였을 때 연상되는 단어나 느낌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적어보고, 조원들의 소속 단체 중 한 곳을 골라 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이다. '패션(fashion)'과 '직물(textile)'이라는 단어를 연상했고, 홍콩의 한 단체가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



도록 이민자 지역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이민자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자주 가는 중고샵에서 패션쇼를 열어 중고샵을 홍보하고, 이민자들이 직접 패션쇼의 모델로 서고,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돋보이도록 또 잘 녹아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슬리퍼에서 패션쇼라니! 정말 유익하고 신기한 워크숍이었다.

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에서도 국내외 금융교육 전문가들이 씽크머니에 대한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씽크머니 금융교육의 수혜자 뿐 아니라 강사들도 9년동안 제법 규모가 커졌다. 이제 이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국내의적으로 한국YWCA의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금융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식을 갖고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합회 한미미 위원장은 청소년 금융교육에는 가정, 학교, NGO, 기업, 정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에게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진정한 청소년 금융교육이란, 지식과 태도의 변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관련한 선택과 행동의 건강한 변화를 통해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앞으로 씽크머니는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담가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씽크머니를 하는 모든 지역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말에는 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 감각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금융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씽크머니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여성, 다시보기 다 보기를 통한 Y 운동의 연대

글 | 김재현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2014~2015년 한국YWCA 6대 과제로 '성인지 정책 정착'과 '여성폭력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YWCA 운동방향을 공유하고, 활동가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위해 여성 담당 활동가 워크숍이 진행됐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열린 여성 담당 활동가 워크숍에 다녀왔다. 가장 바쁜 시기에 진행된 워크숍이라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회원Y 실무자들과의 첫 만남인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여성, 다시 보기 다 보기'라는 주제는 연수 내내 내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올해 여성관련 부서로 이동하면서 여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그런 배움의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제부터 의미있게 와 닿았다. 그동안 나도 여성이지만 여성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들, 새롭게 배우게 된 것들,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의 방향이 이 주제에 합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새로웠다.

정희진 선생님을 통해 여성주의 시각으로서의 여성운동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 한국YWCA 역사를 통해 YWCA가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한 재점검, 주제별 대화 나눔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의 시간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주제별 대화나눔은 생생한 현장이야기, 실무자들의 애환, 지역사회에서의 YWCA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 여성 담당 활동가 워크숍이라는

제목 자체가 아직은 세련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정리되지 않은 제목과 워크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야만 하는 의지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게 된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다.

여성 운동은 어렵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흔히들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했다', '여성 대통령까지 배출된 세상이라 성평등은 이미 실현되었다', '오히려 남성이 피해보는 역차별 시대다'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군대 문제 등의 '역차별' 담론은 이 땅의 모든 여성의, 우리 자매의, 후배의, 엄마의, 워킹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식들에 비해 여전히 한국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이며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로, 승진기회 박탈로, 여러 위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교육의 기회)', '조건적 평등(남녀가 가진 조건을 고려한)'을 갖추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평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녀가 가진 조건을 고려한 조건의 평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이뤘다 해서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성엔 취업 시부터 불평등이 시작된다. 남성과 동일 학력, 동일 노동을 하지만 동일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동일 조건이라도 임금의 격차는 40%나 된다



고 한다. 승진의 기회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월등히 높다. 국내 10대 대기업 임원진의 구성을 봐도 여성의 비율은 1.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의원 비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전체 국회의원의 수의 절반은 커녕 20%(현재는 15.7%)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지만 여전히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낮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공적영역에까지 여성의 진출과 참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모두 갖춰졌을 때 성평등 사회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연대로 Y 운동을 이루어가자

서울YWCA는 성 인지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 젠더 관점에서의 미디어 모니터링, 지역에 찾아가는 성 인지 교육 확산,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한 가족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4색 티(TEA)룸'을 진행하여 여성 관련 담론을 담아내어 방향을 모색해 보고, 정책 제안 등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엄마·여성의 신(新)가치 기준을 세워보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의식을 확산하는 캠페인 등을 병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을 온전하게 세우고, 각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서울YWCA의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YWCA 운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닌, 여성들이, 회원Y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워크숍을 통해 공감하고 의지를 모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장을 만들어 준 연합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YWCA의 이름으로,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복한 상상을 통해 미래를 함께 꿈꾸고, 여성을 다시 보고, 다 볼 수 있는 시각을 담아낸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우리는 YWCA 활동가이기에 연대하고 함께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여성 담당 활동가들을 위한 이러한 워크숍이 지속되어, 이를 통해 실무자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Y와 함께한 30년을 돌아보며

글 | 박성숙 (전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국장)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노크하는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다. 전국 52개 센터 중 YWCA가 운영주체인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믿음의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와 선배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을 안고 전국에서 120여 명이 전북 무주리조트를 향해 달려왔다.

이번 실무자 연수는 연합회가 주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연구모임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서부지역 중견 실무자들이 기획단으로 준비했다. 수많은 여성들을 훈련하고 상담하면서 지친 실무자들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숨을 통해 재충전하고, YWCA의 중점운동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행복충전 달랠라'라고 제목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첫째 날은 여는예배로 시작하여 차경애 회장님께서 'Y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의 자세'로 주제강연을 해주셨다. 한국YWCA의 직업훈련 역사가 곧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태동이 되었고 그 안에서 실무자들은 이러한 Y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게 되었다. 이후 공동체 놀이와 네트워킹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행복한 시간이었다.

둘째 날 한국YWCA 중점운동 워크숍은 연합회 명진숙 국장을 통해 6대추진 과제를 가지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운동'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돌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으로 직업훈련과정과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직업상담원과 취업설계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별히




왼쪽부터 광주 손유영 부장, 전주 박성숙 국장, 군산 김선화 부장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회원들의 종이컵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개인컵의 휴대를 권유하고, 컵 대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여료를 100원씩 받아 복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오후에는 가을비가 내려 외부활동인 향적봉 등반이 각 센터별 자유여행으로 변경되었다. 리조트를 벗어나 무주의 자연을 벗삼아 낙엽을 밟고, 비를 맞으며 보낸 시간들은 실무자 연수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해냈다.

셋째 날 이천진 목사님의 실무자 영성 훈련 '새벽종소리'는 일 중독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서부지역센터 중견실무자들이 3차에 걸친 기획회의를 할 때도, 연수 하루 전날 도착해 준비하는 순간 순간에도, 연수가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가 솔선수범했던 이번 연수는 행복한 힐링과 Y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최고의 연수였다. 1983년 대학Y회원으로 시작하여 30년이 지난 지금, 내가 YWCA 중견실무자임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고, 작은 실천을 통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정진해 보겠다고 오늘도 조용히 외쳐본다. 

성인지 정책의 전국운동 정착을 위해

글 | 박동순 (인양YWCA 사무총장)

YWCA경기지역협의회는 2013년에 이어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의 현황을 시범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주류화 제도가 기초단위까지 잘 정착되어 실질적인 성평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10월 29일 경기지역 모니터링결과 종합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전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면, 올해는 작년의 모니터링 결과로 나온 지역별 과제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전년에 비해 변화된 점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해 성평등 의제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올해 모니터링사업결과 11개 지역의 분석평가건수는 1,263건으로 작년 904건에 비해 40%나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새로이 분석했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사업대상으로 분석한 전체 470건의 보고서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정책개선안이 제시된 것은 405건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을 국가과제로 반영하는 국가성평등정책의 방향으로서, 사회전반에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시책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서 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로 도출된 사항 또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과 기본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개선사항의 유형은 다음과 같았다.


여성정책기본계획 관련 제안사항은 405건 중에서

- ①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116건(28.6%)
- ②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부분-113건(27.9%)

- ③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부분-59건(14.6%)
 - ④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부문-35건(8.6%),
 - ⑤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부문-29건(7.2%),
 - ⑥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강화-28건(6.9%),
 - ⑦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부분-25건(6.2%)
- 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사업과 각 지역별 토론회, 경기도 토론회를 통해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고양시의 경우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고양Y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지통계집을 만드는 등 제도의 추진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제도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위원회(가칭)'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확인하였고, 각부서의 담당공무원의 협력과 동기 부여를 위한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지역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별 컨설팅 지원모델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경기지역YWCA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3차년도까지 협력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시군모니터링사업과 함께 경기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경기지역YWCA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전국YWCA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사업을 한다면, 한국YWCA 중점운동인 성인지정책의 정착을 위한 전국단위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해본다.

모니터링에 동참해 분석에 수고한 경기지역 11개 YWCA와 과중한 업무 가운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추진 담당자로서 성의 있게 인터뷰에 응하고 자료협조를 한 각 시의 담당공무원과 각 지역의 교육과 정책토론회 참여해 준 많은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순천YWCA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모금연주회 열다

글 | 김정민 (순천YWCA 팀장)

2014년 모금워크숍을 진행한 정회원YWCA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금워크숍 이후에 Y 내부의 모금운동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 Y만의, Y다운 모금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9월에는 자체적으로 회원Y의 후원행사와 바자회 노하우 공유 워크숍이 진행됐다. 8개 회원Y의 애정과 정성, 그리고 후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간 이 자리에서는 회원Y들의 노하우이기 이전에 지역사회 속에서의 Y 운동에 대한 간증이요, 함께 소통하는 속에서 이루어내는 변화들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였다. 참여한 23개 회원Y들에게 있어 모금워크숍 후속으로 진행된 노하우 공유워크숍은 Y 운동에 대한 자부심과 아울러 각 지역에서 성찰의 기회뿐만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었다. 특히, 모금워크숍 이후에 6개 정회원Y들이 워크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매년 10월 진행되는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뜻깊게 진행한 순천YWCA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시작은 단순명료한 명제, '배웠으니 실천하자'였다.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모금워크숍. 절대 결석해서도 안 되고 인원이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전제로 회장님을 비롯한 6명의 순천YWCA 모금워크숍 전담팀을 꾸렸다. 별도의 모임을 갖기보다는 승용차로 왕복 7시간의 길을 차 안에서 보내니 오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과제에 대한 토의를 하고, 그야말로 오붓한 회의가 이루어졌다.

순천은 인구 27만이 사는 소도시. 순천Y는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강점은 손맛 좋은 이사들과 봉사자들이다. 인간미가 흐르는 노동 집약형 인건바자회와 회원들이 직접 만드는 김부각을 필두로 하는 구정 선물 바자회와 추석바자회가 특징이었다. 인건바자회는 품목 선정에서부터 결산까지 전담하여 봉사해 주시는 재정위원장이 있었고, 추석대비 바자회는 김부각을 만들기 위해 온 이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10년 이상 새벽을 깨우는 각 클럽과 위원들의 봉사가 있기에 가능했다.

24절기 중 처서가 지나면 약 2주간 추석 전 바자회까지

오전 6시 새벽기도를 마친 이사님들이 김에 풀을 붙이고 깨를 찍으면서 시작하는 부각 붙이기를 진행한다. 오전 봉사조가 이를 벌에 말리고 오후 봉사조는 뜨거운 햇볕에서 커다란 발에 붙인 김을 떼었다 다시 붙였다를 반복하는 식이다.

이러한 활동도 정말 의미가 있었지만 3회기로 진행된 모금워크숍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도전해 보기로 했다. 모금워크숍과 노하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다른 회원Y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마침 세월호와 고난주간으로 포스터까지 찍었다가 무기 연기한 순천Y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전광석화처럼 우리 팀에 꽂혔다. 하나님의 은혜로세!

먼저 합창단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정기연주회 계획을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연주회로 방향을 전환하고 총 10회에 걸친 기도회와 전략회의를 매주 가지면서 준비했다. 모금워크숍에서 배운대로 거액기부를 할 만한 업체와 기관



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 중 Y와 관련 있는 거래처,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사들이 가장 먼저 개인별 후원금을 작성해 이 금액이 전체 모금의 미중물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Y가 좋은 일 한다면서 흔쾌히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주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예 너무 힘들다고 거절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Y가 손을 내밀지 않아서 후원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금에 동참해 준 대부분의 개인과 기관들이 모두 어떤 형태로든 Y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Y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와 연계하는 합창단 정기연주회. 10여 곡이나 되는 연습곡을 바꾸지는 못하고 어린이와 청중이 함께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삽입하고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약간 수정하여 사전무대로 올리기로 했다. 결론은 대감동.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관객들이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광고협찬, 후원금과 티켓 판매 등으로 사전모금을 했지만 행사 당일 현장모금을 위해 행사장 입구와 곳곳에 모금운동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관객들이 모금과 연주회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받은 실무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안내하여 어린이들에게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고 어른들에게는 북한 어린이의 실상에 대한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20대에서 70대가 만들어낸 땀 흘린 수고의 빛과 합창단의 화음이 가을밤을 수놓았다. 단상위의 단원들이나 객석에 있는 관객 모두가 모금운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각자의 자리에서 감동이 되었고, 합창단원과 가족들을 위한 리셉션과 그동안 연습장면을 담은 엔딩 크레딧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들을 남겼다.

연합회 강당에서 시작한 모금워크숍 첫날, 순천Y 참가자들은 함께한 다른 회원Y들의 활약에 눈이 부셨다. '괜히 모금워크숍에 신청했나'하는 후회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했다 했던가. 회원운동체로서 당연히 목숨 걸고 해야 하는 회원증모운동의 열기에 불씨를 지피기도 버거워하던 이사과 회원들도 목적성이 분명한 모금운동 앞에서 각자의 것을 나누는데 모두가 열심을 내주었다.

결과론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모금 연주회는 잘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회원증모운동은 매년 넘어야 하는 산으로 남아있다. 넘어야 할 산이 있기에 산이 아름답다 했던가. 회원증모운동을 모금운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묘수가 산을 넘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라는 위안을 해보며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하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기관인 Y가 해야 하는 옳은 일은 길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이 드는 것은 또 무슨 자신감일까. 순천Y 합창단이 불렀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를 흥얼거리니 나뉘줄 생명과 평화의 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Y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받은 엄청난 부자라는 생각이 든다. 

전국 YWCA 회원들이 함께 외친 “고마가라 고리1호기!”

11월 15일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며 전국 YWCA 회원들이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한국YWCA연합회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공동으로 부산 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전국집중행동 ‘고마가라 고리1호기’에 참가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모인 1천여 명은 함께 부르는 ‘떼창’을 통해 원전폐쇄를 촉구했다.

수명 다한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포기 염원

노후원전 고리1호기의 수명 재연장 방침이 확인되면서 전국의 단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고리1호기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의 예비 안정성 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6월, 고리1호기의 수명 재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부산으로 모였다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회원YWCA(김해, 대구, 대전, 부산, 부천, 사천, 서울, 성남, 수원, 안양, 양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 청주, 하남) 이사, 위원과 실무자들이 15일 오후 부산시민회관에 모였다.

YWCA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 범일동 시민회관에서 사전 행사를 가졌다. 부산YWCA 김혜경 사무총장은 전국에서 이른 시간부터 출발해 부산으로 모인 YWCA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연합회 차경애 회장은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는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여성과 아동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끄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 이명혜 부회장의 여는 기도 후에 도보 행진을 위한 대열을 가다듬고 송상현 광장으로 출발했다.

3.7km의 부산 시내 도보 행진

단체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도보 행진을 진행했는데, 한국YWCA는 B구역을 맡아 시민회관부터 송상현 광장까지 약 3.7km를 도보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원전 폐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렸다.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장단에 맞춰 Y 회원들은 버스 안에서부터 연습한 ‘고리 폐쇄송’을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진했다. 대열이 흐트러질 때마다 YWCA 탈핵노래인 ‘핵을 반대합니다’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며 약 1시간 가량의 도보 행진을 마치고 1천여 명이 송상현 광장에 함께 모였다.

안전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부산을 지키자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는 광장에 모인 1천여 명이 ‘고리 폐쇄송 떼창’을 선보였다. 부산YWCA 브라스밴드의 공연에 이어, 부산반핵대책위 위원장인 하선규 부산 Y 회장은 “가동을 시작한 지 37년이나 되는 고리1호기에서 그동안 발생한 고생은 알려진 것만 130차례”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가 수명 연장 기도를 포기하고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위해 전국 52개 회원YWCA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YWCA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를 함께 모아 핵발전소가 폐쇄되는 그날까지 탈핵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글 : 편집실)

하늘 냄새

글 | 이천진 (한양대학교회 담임목사, 연합회 전문자문위원)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방법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다. 12세기의 수도자인 귀고(Guigo)가 정리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는 읽기(Lectio), 묵상하기(Meditatio), 기도하기(Oratio), 관상하기(Contemplatio)이다.

읽기는 성서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관상하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가바로 지금입니까?”

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9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서서 11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읽기 (Lectio)

사도행전 1장 1절~11절

1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2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3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6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

묵상 (Meditatio)

1.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까? (1절)

2.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언제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까? (2절)

3.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십 일 동안 나타나셔서, 무엇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까? (3절)

4.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습니까? (4절)

5.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제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5절)

6. 사도들이 예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되찾아

주실 때에 대하여 물었습니까? (6절)

7. 예수께서 떠나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

8. 성령이 내리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무엇이 됩니까? (8절)

9.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

10.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어떻게 오십니까? (11절)

기도(Oratio) / 묵상 나눔

욕망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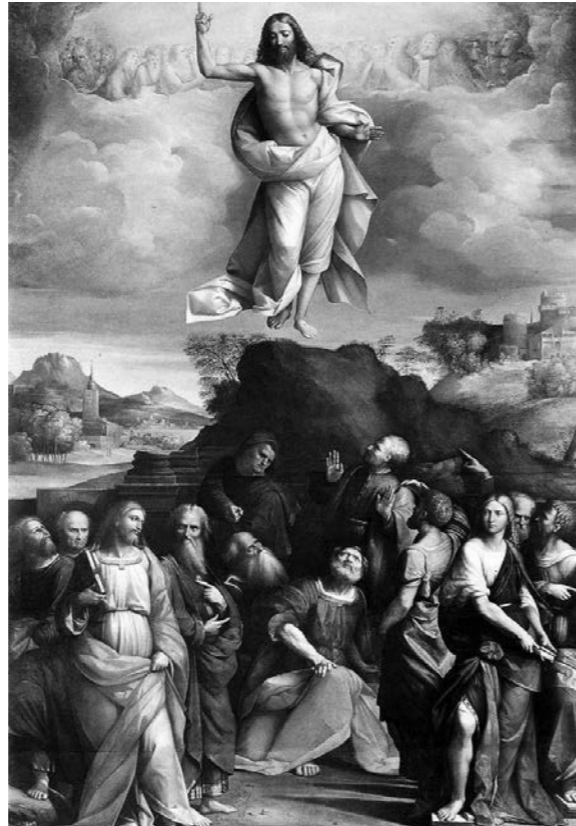
1절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승천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그리스도의 승천일(the Day of Ascension of the Lord)입니다. 3절에서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의 욕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 욕망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으셨습니다.

핵심 질문 **핵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를 땅 끝까지 증언

4절과 5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존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성령은 하늘나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답변은 아직도 하늘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늘 냄새가 가득



그리스도의 승천(Ascension of Christ), 가로팔로(Garofalo)

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7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마지막 유언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증언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땅 끝까지 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냄새가 가득한 세상

마지막 유언을 하신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의 냄새가 하늘 아래에 퍼져야 하늘 아래에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냄새가 가득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냄새를 안고 다시 오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S. 치프리아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은 결별이 아니라 되돌아오심에 대한 보증입니다. 즉 제자들과 우리들로 부터의 떠남이 아니라 보다 풍성한 성령의 활동에 의해 더욱더 실제적인 위로를 주는 당신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지만, 승천은 사람이 하늘이 된 사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래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냄새를 가득 안고 오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냄새를 가득 안고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핵심 질문 **핵은 욕망의 냄새를 퍼뜨리니까,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니까?**

탐욕과 오만의 냄새


장윤재 목사는 2014년 1월 2일, YWCA 신년예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모든 만물과의 관계성을 부인하고 지구 위에 홀로 그리고 생명의 그물망 밖에 따로 군림하려는 ‘전능하신’ 인간의 문제입니다. 기나긴 지구 생명의 역사를 하루로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오후 11시 59분 50 몇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겨우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100년도 모자라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인간은 지구 위에 나타난 이후 모든 것을 굴복시켰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바다도, 하늘도, 맹수도, 병균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만해졌습니다. 특히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이른바 위대한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불로 마녀를 화형시켰고,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투하했으며, 베트남을 네이팜탄으로 불태웠습니다. 무한 성장의 탐욕 속에서 지구를 맘껏 사용한 인간은 지금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과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의 중심에 바로 핵이 있는 것입니다.” 핵은 탐욕과 오만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늘 냄새

박희준님의 시, “하늘 냄새”입니다. “사람이 / 하늘처럼 / 맑아 보일 때가 있다 / 그때 나는 / 그 사람에게 / 하늘 냄새를 맡는다.” 우리가 서로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면, 사람을 함부로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비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 냄새를 맡는다면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단원고 이다운군은 가슴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 했어요 /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를 안아주고 싶어요 /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 그대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싶지만 / 항상 마음만은 그대 곁에 있어요 /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대를 위해 불러봐요 / 힘이 든 그대를 생각 하면서 /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 했어요” 다운이는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관상(Contemplatio) / 실천(Praxio)

1)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2)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향기는 무엇입니까?

3) 탈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Y 중견활동가 영성에 빠지다

글 | 최수신나 (연합회 Y아카데미 부장)



2014 중견실무자 영성훈련이 10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2박3일간 충북 옥천의 나목수련원에서 회원Y 본부 중견 실무자들과 여성신학자 위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부의 중견실무자들은 어떤 고민과 해결 과제를 안고 있으며, 개인적 신앙과 Y 운동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지, Y의 영성을 나누고 각자의 운동에 힘을 얻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Y의 목적과 사회적 영성

YWCA 운동의 핵심은 실천이다. 목적문에서 명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삶에 실천'함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야 한다. 예수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고 말한다. Y 운동은 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 곧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YWCA 운동가로서 품어야 하는 영성은 개인적 품성이나 영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가치의 변화를 사회적인 변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영성이어야 한다. 사회적 영성은 기독교 영성

의 전통으로 성서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으며 Y 운동이 지향해온 영성이 공공성과 사회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것임을 성서적 고찰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운동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는 신앙적 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Y, 성서, 그리고 여성활동가

두 차례의 기획회의부터 전 일정의 진행까지 다섯 분의 위원들이 함께 해주셨다. '성서와 대화하기'라는 제목으로 성서의 형성과정과 이해의 관점을 통해 사회적 영성 이해에 도움을 주신 김기동 실행위원, Y 목적문과 관련한 사회

적 상황의 고찰을 통해 Y영성과 운동가의 삶을 성찰하게 해주신 최만자 Y아카데미 위원,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의미와 지금 사회에 필요한 기도와 그 방법을 고민하게 해주신 안수경 Y-틴 위원, 참가자 전원이 한 자리에서 'Y활동가 기도문'을 합의하고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성찬과 중보 기도회까지 인도해주신 최소영 Y아카데미 위원,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드리는 예배로 다시 순례의 길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신선 홍보출판 위원, 그리고 소그룹으로 실무자들을 계속 만나며 성서와 여성, 그리고 Y 여성운동가로서의 내 삶에 대한 의문과 치열한 고민을 풀어내며 말씀을 통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한 힘이였다.

쉽을 목적으로 찾았던 훈련에서, Y운동에 더 넓게 눈을 열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무엇보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아픈 자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혼자 아닌 연대의 힘으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실무자들의 말과 표정에서 나누어지는 일정들이었다. 이 짧지만 뜨거운 경험을 통해, Y 중견활동가들이 우리의 본래적 목적과 영성에 비추어 본인의 삶과 운동을 조망하여 해석하고 이끌어 가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의 운동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YWCA

참가자 소감

글 | 이규숙 (안양YWCA 팀장)

안양Y의 중견실무자 3명이 참여하는 특혜를 받고, 어느 멋진 가을날 나목수련원으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습관처럼 대해왔던 성경에 대해 듣고 알아가면서 성서 속의 여인들을 새롭게 보는 시간은 매우 신선했다. 또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는 영성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누었던 성찬과, 기도묵상, 예배 인도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공동체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동안 지쳐있던 나에게 다시금 Y활동가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깨우쳐 준 소중한 귀한 영성의 시간이었다. 나의 40대를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다. Y운동 7년차에 들어가면서 항상 YWCA 활동가로서 Y와 W를 우선하여 움직였던 시간 속에서 C를 돌아보게 하는 영성훈련시간이었다. YWCA안에 가장 중요한 영성! 앞으로 Y의 모든 일들에 함께 하기를 다짐해본다.

글 | 김우숙 (포항YWCA 팀장)

늘 쫓기는 생활 속에 '중견실무자 영성훈련'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안고,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어 도착한 곳은 낯선 옥천역. 택시를 타고 20여 분을 가서 깊은 시골 향기가 나는 한적한 펜션 앞에서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합회 교육이나 훈련 장소와는 사뭇 달라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낯선 곳에서 조금은 어색한 만남으로 시작된 영성훈련은 늦은 밤까지 이어져 피곤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기우였을까? 너무도 오랫동안 잠재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성경공부에 열정을 태우던 대학 동아리 시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신선하기까지 했다. 얼마만일까? 이런 느낌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신앙인의 본질적인 영성이 나를 깊은 잠에서 깨우는 듯하였다. 설 새 없이 달려온 일상이지만 신앙인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영성을 다지는 그 시간이 마음 속에서부터 영적 힐링을 가져오고, 특히 2박 3일의 훈련시간이 Y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적 영성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우고 느끼며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실무자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YWCA 활동가 기도문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정의, 평화,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진정성 있는 화해와 용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역경과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꿈꾸는 Y정신 안에서 주를 신뢰하며 모든 관계 가운데 섬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에 가까이 동참하게 하소서.

2014 중견실무자 영성훈련 참가자 일동





마을과 함께 북한어린이를 도와요 마을에서 벌이는 작은 실천

북한어린이돕기모금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마을에서 주민들과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하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천YWCA는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우선 새롭게 이사로 활동하시는 부천의 원미유치원 원장님은 총회 때 받으신 저금통을 고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북한어린이 돕기를 진행해 주셨다.



‘원미유치원 박성애 원장님: “올해 1월,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자기 일터에서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펼쳐야한다고 해서 원아들 63명에게 저금통을 나눠줬어요. 밥 먹을 때마다 북한 친구들과 나눠먹는 마음으로 동전을 모으자했지요. 455,350원! 적은 액수지만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해주세요~”

‘옛들칼국수’ 사장님: “YWCA 회원가입을 해놓고, 밥집을 영을 하느라 도움 되는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서 전달할게요. 작은 정성들이 큰 일을 이뤄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밥집 사장

님은 올 한 해 102,970원을 모아주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동점’ 사장님: “저는 부천Y 후원회 원이에요. 손님들이 YWCA가 좋은 일 한다고 잔돈 잘 넣고 가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돼지저금통 배불러지면 또 가져다 드릴게요”(사장님은 105,530원을 모아주심)

‘다운약국’ 김영순 약사: “부천시 원미구 다운약국 단골 고객들의 정성~53,680원! 이 작은 정성이 생명을 살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부천Y 부회장으로서 약국에서나마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천Y 아기학교 송인아 엄마: “아기학교 선생님이랑 미술시간에 저금통을 함께 만들었어요. 10월 한 달간 간식시간마다 북한을 생각하며 동전 모으는 시간을 가졌구요. 동전이 한 개씩 썩 떨어질 때마다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는 딸아이가 이뻐요. 내년에는 1년간 매수업마다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기학교 24명 아이들이 한 달간 모은 동전은 71,090원)



(부천YWCA는 함께 정성을 모아 2014년 총 1,208,620원을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 사업단에 전달했다.)

북한어린이돕기 후원 연극 “월남스키부대”

SHOW&NEW는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에 현재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는 “월남스키부대”의 1회 공연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YWCA 북한어린이돕기 사업단은 그동안의 장기 후원자에 대한 감사 나눔과 잠재후원자(향후 북한어린이돕기 후원 가능자)들을 초대하여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알리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후 8시
- 장 소 :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 연극명 : 월남스키부대
- 초청석 : 200석

〈연극 소개〉

- 출연진 : 이한위, 서현철, 심원철, 손종범, 최재원, 진태이, 이석, 이시훈, 이상혁, 김나미, 노수산나, 수안, 오상은
- 제 작 : SHOW&NEW
- 연 출 : 심원철
- 티켓가격 : 전석 4만원 (만 8세 이상 관람 가능)
- 러닝타임 : 100분
- 내 용 : 연극 〈월남스키부대〉는 허풍으로 중무장한 한 노인과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연극으로 월남 영웅담에 빠져 사는 허풍쟁이 김노인과 그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물건 훔치러 들어왔다 김노인의 입담에 휘말려 난데없이 남의 가족사에 개입하게 된 도둑의 이야기다. 이미 영화화 판권까지 팔릴 정도로 캐릭터와 이야기의 힘이 있는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본 연극은 NEW가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공연콘텐츠를 선보이고자 설립한 공연전문 자회사 SHOW&NEW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10월 (2014년 10월 1일 - 10월 31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2014. 10. 1. ~ 10.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광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진, 김가혜, 김건세,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솔, 남하숙, 명진숙, 문미란, 문인수, 박보람,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세원,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안정희, 안혜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향재, 이향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임향자,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정미, 전하예,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은선, 조은희,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우림, 최원진, 최유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홍기자, 홍현정, 황정아, 황홍백 (총 96명)	1,441,000
개인 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 등)	김미, 방원철(성광교회), 최혜실	210,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희성교회	16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신우회	50,000
회원YWCA	안동YWCA, 대전YWCA	191,690
합 계		2,052,690

연합회 소식

11월 월례기도회



11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1월 3일 오전 8시에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가 '애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세상의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신실한 Y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과 연합회·회원Y 간담회



매주 화요일 명동에서 펼쳐지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추운 날씨에도 회원Y 주관으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캠페인 이후 연합회·회원Y 간담회를 통해 캠페인 참가 소감을 나누고, 지역의 탈핵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은 전국 52개 회원Y에서 지속하고 있다.

고리 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한 전국집중행동

11월 15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에 전국 52개 YWCA 회원 25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YWCA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

고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날 집중행동에서 한국Y는 사전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범일동에서 송상현 광장까지 한 시간여 동안 도보행진을 하며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제12회 한국어성지도자상 시상식

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는 YWCA 제12회 한국어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6일 오후 2시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화암홀에서 열렸다. 대상 수상에는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젊은 지도자상에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Y 평화홍보대사인 팜페라 가수 임형주의 축하무대가 있었으며, 1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자세한 내용은 24쪽부터)

세계YWCA·YMCA 국제친선주간 연합예배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세계YWCA·YMCA 기도 및 국제친선주간을 맞아 11월 12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이 모여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장운재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으며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향한 다짐을 종이배에 담아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14쪽)

YWCA 여성 담당 활동가 워크숍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YWCA 여성 담당 활동가 워크숍이 버들캠프장에서 진행됐다. 14개 회원Y의 여성 담당 활동가와 연합회 위원들이 참석해 최만자 위원이 기독교여성운동으로서의 YWCA운동 다시보기(성서연구)와, 유성희 사무총장이 '한국 사회와 Y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부터)

YWCA 청소년 활동가 연수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Y와 부산 일대에서 청소년 활동가 연수가 진행됐다. 김혜경 부산Y 사무총장이 부산Y와 운동을, 유성희 사무총장이 Y 청소년운동의 비전과 사명을 소개했다. 고리원전 본부를 탐방해 청소년 탈핵운동 과제찾기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힘과 심을 얻는 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부터)

YWCA 여성주의 연구모임

10월 16일과 29일에 '여성과 정치'를 주제로 제3차, 4차 여성주의 연구모임이 열렸다. 강사로 김은주 한국어성정치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각각 '남녀동수정치 참여확대방안'과 '여성리더십개발과 통일 시대 여성 참여'라는 세부주제로 진행됐다. 제5차, 6차 모임은 11월 17일과 21일에 '여성과 폭력'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YWCA 중견실무자 영성훈련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옥천 나목수련원에서 YWCA 중견실무자 영성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3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의 회원Y 중견실무자들이 모여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신앙과 Y 운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여성신학자 위원들이 함께해 Y의 영성을 나누고 참가자들이 각자의 운동에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38쪽부터)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연수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무주리조트 가족호텔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105명이 참석해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Y의 중점운동 공유와 인문학 강의, 실무자 영성훈련 등이 주제강연과 특강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관장연구모임도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2014 YWCA 금융강사교육, 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 금융교육 해외연수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의 강사 양성을 위한 2차 씨티강사교육 및 YWCA 금융강사교육(심화과정-오프라인)이 각각 10월 20일, 10월 27일에 진행됐다. 10월 27일 오후에는 서울Y 강당에서 '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이 개최돼 9년 동안 이어온 씽크머니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편,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해외 금융교육의 동향과 운영 사례 파악을 위한 '2014 한국YWCA 금융교육 해외

연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014년 돌봄협동조합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부천Y와 성남Y, 서울Y 돌봄미와 실무자들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오사카로 돌봄협동조합 연수를 다녀왔다. 오사카Y가 운영중인 개호보험시설 사론센리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이 설립 운영중인 사가현의 워킹즈 코프 '모두의 집', 이타미시의 이나미노동자협동조합 등을 방문해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도스뜨' 사업 보고회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함께 하는 2013-2014 지구시민자원활동 프로젝트 '도스뜨'의 사업 보고회가 10월 30일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7월부터 8월까지 인도 샬렘지역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도스뜨'가 수행한 보건위생, 영어, 컴퓨터, 문화예술 교육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올해 처음 시도한 인도 빈민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연구 보고와 현지에서 시작된 직업기술교육 현황이 공유됐다.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연합회가 서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었다.

YWCA 돌봄 임원 워크숍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YWCA 정체성에 따른 돌봄회원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형 돌봄 조직에 관한 논의를 위해 회원YWCA 돌봄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전국 17개 회원Y 소속 70명이 참석했다.

등정

- 공천위원장(2014~2015) 선출 배영자 위원
- 세계YWCA 이사회(콜롬비아 보고타) 참석 (2014. 10. 9.~10. 15.) 원영희 세계YWCA 이사(연합회 서기)

복부

인천YWCA | 박인영 간사
감정노동자 캠페인



10월 31일(금) 감정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인천 녹색소비자연맹과 인천YWCA가 함께하는 감정노동자 캠페인은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인 감정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노동단체, 사업자 단체, 학계,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이웃사랑 민들레 나눔장터



10월 14일(화)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독거어르신, 청소년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래미안웨딩홀에서 있었다.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고, 먹거리코너 음식을 손수 만들어 판매하여 나눔장터를 이용한 회원들과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사, 위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봉사료 이루어진 뜻 깊은 행사였으며 수익금은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동해YWCA | 김정은 간사
감사나눔 한마당

10월 25일(토) 동해시청 잔디마당에서 결식 우려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과 급성영양장애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감사나눔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공연, 홍보, 체험, 나눔의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동해Y를 사랑해주는 회원과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했다.

속초YWCA | 최훈실 간사
일일찻집과 바자회

10월 23일(목) 속초 라고 레스토랑에서 일일찻집과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일일찻집에서는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주와 시낭송, 난타공연이 이루어졌다. 미니바자회 및 장터에서는 의류, 악세서리, 반찬 및 먹을거리, EM제품 등을 선보였다. 이번 회원의 날 축제는 평양Y 재건 사업과 북한어린이돕기 및 재중동포자녀 장학금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으로 열렸다.

원주YWCA | 윤정진 간사
떠나자, 자연의 품으로!



10월 18일(토)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환경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험하는 프로그램 '에코스쿨'이 진행됐다. 10월에는 치악산 자연학습원 환경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전시회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치악산을 등반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했다.

경기

고양YWCA | 남경혜경국장
25주년 창립감사예배, 탈핵캠페인

11월 3일(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Y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성찰이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우크렐레 연주로 한층 따뜻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의미있는 창립기념일을 보냈다.

남양주YWCA | 이정은 간사
애들이 밥먹자, 탈핵 캠페인



10월 1일(수) 중앙선 도심역 광장에서 청소년 및 시민들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탈핵운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사, 위원, 실무자와 신한은행 덕소 지점 직원들이 함께 해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뜻 깊고 보람된 행사였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강좌' - 협동조합 설립 기초교육

부천Y가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 강좌'가 10월 23일(목)에 진행됐다. 이번 10월 강좌는 지난 9월에 이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를 모시고 '돌봄서비스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대기업들의 돌봄시장 진입에 맞서 협동조합이 지켜야 하는 자세와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 이번 강의를 통해 돌봄협동조합으로 가는 길에 대해 당사자인 부천Y의 돌봄회원들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10월 23일(목) 올바른 식습관과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삼일공업고등학교 13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김밥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간편한 아침식사 레시피를 전달했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수명 끝난 원전 말고 안전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수명 끝난 원전과 이별을 위한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다. 밀양송전탑 풍자 만화 전시회와 함께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인증 사진 찍기 등의 캠페인을 펼쳤으며, 10월 30일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 교수의 탈핵 강연이 있었고 10월 31일은 '도쿄핵발전소' 영화상영회를 가졌다. 또한 11월 8일은 회원 30여명과 함께 경주 월성원전을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여행 '굿바이 월성호기'라는 내용으로 노후원전 수명 연장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돌아왔다.

안양YWCA | 이규숙 팀장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토론회

10월 28일(화) 경기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경기지역 11개 YWCA가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보고 및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였다.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으로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제안되었고, 행정부의 의지와 제도 추진을 위한 현장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시민활동의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제안되어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활용을 기대하는 토론회를 마쳤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생명 사랑 녹색 나눔 장터

10월 17일(금) 의정부에서는 생명 사랑 녹색 나눔 장터가 열렸다. 매년 10월 진행되는 나눔 장터는 YWCA가 직접 만든 안전한 먹거리, 이주여성들이 만든 이색 먹거리를 판매했다. 또한 Y 부스를 통해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으며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했다.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이날 수익금의 일부는 북한어린이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부

대전YWCA | 김지찬 간사

테마가 있는 역사기행



10월 28일(화) 회원 45명과 창녕 우포늪으로 테마가 있는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국내 최대의 자연늪과 우포늪을 보고, 생태관 체험을 통하여 4계절의 우포늪 모습을 시청, 자연 서식지를 돌아보며 가을 하늘과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제5회 맑은 물을 위한 걷기 행사



10월 25일(토) 맑은 물을 위한 걷기행사를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해 제천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천의 하천을 따라 함께 걸어보았고 제천 의림지에 황토와 EM으로 만든 흙공을 던져 하천정화 캠페인과 함께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임을 인식하고 물을 마시지 않고 6km 걷기 체험을 하며 물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청주YWCA | 김지현 간사

제16회 청주여성영화제



10월 27일(월), 28일(화) 양일간 제16회 청주여성영화제가 열렸다. 이번 여성영화제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 스스로 밀해보자는 취지 아래, '그녀가 말하다'란 주제로 영화 9편을 상영하였다. 영화 만들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단편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많은 관객들이 참석했다.

충주YWCA | 김애영 부장

사랑나눔 바자회

10월 28일(화) 바른 먹거리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바자회를 열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말반찬과 농산물, 국내산 수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를 가지고 펼친 바자회에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임직원들이 함께하며 몸은 힘들었지만 즐겁게 참여하

며 좋은 결실을 맺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충주Y 바자회는 지역에서 좋은 먹거리를 나누는 바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YWCA | 홍진영 팀장

다문화 소비자교육

11월 5일(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서 당당한 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현명한 주부의 소비생활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다문화 여성들이 지역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Y가 앞장서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천안YWCA | 이연주 대리

제25주년 기념예배, 사랑의 바자회

10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패션그룹 형지와 함께 제25주년 기념 사랑의 바자회'를 진행했다. 바자회 전 2주 동안 점심시간에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였고,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천안YWCA 제25주년 기념예배를 천안중앙교회 신문수 담임목사를 모시고 진행했다. 이후 바자회장으로 이동해, 일주일간 천안시민들과 회원들의 사랑 안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서부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캠페인



10월 24일(금) 두암중학교 정문에서 홍보물과 리플릿을 전달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9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광주(400부), 순천(300부), 여수(300부) 공동으로 고카페인 음료섭취 의식 설문조사를 중학생 224명, 고등학생 451명, 학부모 325명(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위해 많이 섭취하였고, 중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맛이나 향 때문에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에게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남원YWCA | 박경은 간사

함께 만들어요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10월 10일(금) 도통동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월 28일(화) 남원고등학교, 10월 29일(수) 성원고등학교에서 '함께해요,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학교폭력, 가정·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급증과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문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하였다. 28일과 29일에는 학교 Y-틴들이 참여하여 교사들과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남원시가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가을장날 지역주민들에게 성향



10월 23일(목)과 24일(금) 양일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가을장날'을 열었다. 이번 가을장날은 Y 목적에 맞는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건전한 재정마련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엄선해서 준비한 김치류 등 먹거리와 생필품, 지역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저렴하게 선보여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가을장날 수익금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YWCA | 장윤미 간사

국화축제기간 나눔장터 부스 진행

10월 24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천만송이 국화축제기간동안 익산지킴이 시민중심 나눔장터 부스를 10일간 진행했다. 익산Y 회원들의 기



증품을 증여받아 의류, 생활필수품, 재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함도 함께 운영해 기부금과 판매수익금 일부를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장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통하여 자원재사용과 나눔 실천이 활성화되는 기회였다.

광양YWCA | 추효인 간사

청소년 환경교육



10월 22일(수) 골약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EM에 관한 설명과 실생활에서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준비된 쌀뜨물에 원액과 당밀을 혼합해서 활성액을 만들고 각자 만든 활성액을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환경의 중요성과 EM의 필요성을 경험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학생역 이외에도 EM을 활용한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포YWCA | 박수현 부장

김미경 토크 콘서트 - 여풍당당! 열정을 디자인하라
10월 30일(목)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된 취업여성과 목포시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코칭)프로그램 - 취업자 간담회 및 멘토링 '김미경 토크 콘서트 - 여풍당당! 열정을 디자인하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지역 여성들의 자존감 향상과 직장인으로서의 마인드를 재확립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에서 윈-윈할 수 있는 슈퍼맘(주부



+워킹맘)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순천Y는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0월 30일(목)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3차례의 모금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후속 결과물로서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에 더 의미가 있었다. 전 이사를 비롯한 직원과 회원, 기관과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에 참여했다. 북한어린이 영상과 함께 합창단원 32명이 만들어낸 화음에 한고를 지역아동센터의 수어 합창, 이란희 무용가님과 강숙자, 조규철 교수님의 찬조출연 등 1,000여명의 관객과 합창단원 모두 눈시울을 적신 가을밤 연주회였다.

여수YWCA | 김상희 간사

동아리 락(樂) 페스티벌

10월 18일(토) 동아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올해로 다섯번째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락(樂) 페스티벌'을 2014년 학동 거북선공원에서 진행했다. 30여 개의 동아리가 공연과 함께 부스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고 참여했고, 활동성과를 발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제주YWCA | 장진우 간사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 '아주 특별한 제주여행'



10월 26일(일)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여

행을 떠나는 '2014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아주 특별한 제주여행'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애리자연생활공원과 신영영화박물관 무비스타를 방문, 자원봉사자들과의 레크레이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은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그린코칭스쿨 - 초록을 배웁니다



10월 31일(금) 서귀포시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코칭스쿨-초록을 배웁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쳤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20개의 어린이집에서 이틀씩 진행되어 10월 말에 마무리되었다. 본 교육의 강사들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강사교육의 수료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교육은 장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어린이집 원생들의 조기 환경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파생효과가 큰 교육이었다.

동부

대구YWCA | 김세형 차장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예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21일(화) 전동주 목사(국제교회)의 설교와 최윤희 운영위원의 특송으로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념식에서는 센터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분들과 기관·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아울러 국립 여성사전시관의 여성 직업훈련역사사

진 패널의 후원과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20여년 간의 사진자료 전시도 함께 진행되었다. 90여년의 대구YWCA 역사 안에서 20년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다.

포항YWCA | 황혜민 간사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



10월 8일(수) 포항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룩 아게인(LOOK AGAIN),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 '보라데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의 '보라'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두 눈으로 관심 있게 자세히 적극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자는데 의미가 있으며 포항Y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과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동YWCA | 강주영 간사

경북YWCA협의회 회원대회

10월 27일(월) 안동교회에서 경북YWCA협의회(경주, 안동, 포항) 회원 200명이 모여 제18회 회원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동지부 소장의 특강을 듣고 이에 맞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거제YWCA | 김의향 부장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을 위한 일일차집

11월 6일(목) 둔덕골지역아동센터와 어른식 무료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일일차집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자원봉사자와 이사, 위원, 실무자가 주축이 되어 인근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김해YWCA | 배정숙 실장

유망직종설명회 및 무료창업특강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11월 19일(수), 20일(목) 양일간 김해시지

원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망직종설명회 및 무료창업특강을 실시했다. 금번 특강은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및 성공창업을 위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전략, 성공전략, 성공사례로 구성되었다. 19일은 봉구스밥버거 이명순 이사의 강의로, 20일은 유통경영연구소 박병대 소장의 강의와 당가(당면의 명가)이영규 대표의 창업성공사례를 강의를 마지막으로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열정적으로 전수해주는 열띤 시간이었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11월 6일(목)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다시 결심하는 기념행사를 마산웨딩 그랜드에서 진행했다. 다양한 축하공연과 활동보고, 공로자 표창 등의 순서로 준비해 그동안 인권지원센터를 위하여 격려한 분들과 열정을 추억하고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사랑과 나눔의 항공과학교실



사천YWCA꿈샘지역아동센터에서는 11월 1일(토) 항공캠퍼스 항공기술관에서 사천시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공동 주관하는 '사랑과 나눔의 항공과학교실'에 참여했다. 항공기 체험, 글라이더 제작, 쿼터콥터 체험으로 아동들이 항공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졌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구인구직 만남의 날

10월 16일(목) 양산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터미널 앞 EXR광장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관내 구직자 300여명이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구인업체와의 면접을 통해 취



업이 이루어지는 일자리 채용마당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유망직종 소개, 구인업체 면접연계 등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켰다. 양산Y는 지역 관내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촉진과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진주YWCA | **김은주 간사**

EM오픈마켓, 탈핵캠페인

11월 8일(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EM오픈마켓과 탈핵캠페인을 열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EM 활용법을 홍보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체험부스에서 EM비누만들기, 노후원전폐쇄를 위한 퍼포먼스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Y의 탈핵운동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들을 담아 생명나무에 메시지를 적었다.

창원YWCA | **정미영 간사**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10월 17일(금)과 18일(토) 양일간 창원만남의 광장에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시민 서명운동과 저나트륨 음식 시식 체험 및 홍보 등을 통해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LED 영상차량으로 나트륨 줄이기 홍보 동영상 상영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해 식품 구입, 조리,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영양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판넬을 전시하였다. 또한 저염식품과 일반 제품을 시식하여 비교하고, 나트륨 OX퀴즈를 풀도록 하여 저염식습관을 알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좋은 기억,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이제 경증치매어르신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1577-1000 | 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 1 기억을 유지하고!
- +
- 2 일상생활 함께하고!
- +
- 3 가족상담, 교육까지!